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MEDICAL GI-GONG
Vol.13. No.1. 2013

일부 알코올 의존자의 삶의 질 및 재발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

유호달* · 정명수**

*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제3의학과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Factors for
recurrent Stress of Alcohol Dependents

Hodal Ryu* · Myong Soo Chong**

* : Dept. of Third Medicin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recurrent stress by analyz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factors for recurrent stress of
alcohol dependents.

Received : 20 November 2013 · Revised : 09 Desember 2013 · Accepted : 21 Desember 2013
교신저자 : 정명수, 570-74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 063-850-6912 Fax : 063-852-5594
E-mail : neurokid@wku.ac.kr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repared for patients who quitted drinking after they had been hospitalized for alcohol dependence to take medical treatment but suffered recurrence, and analysi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factors with drinking risk was conducted.

The quality of life was at a relatively satisfactory level, where pain was found at the highest level and general health condition was found at the lowest level. Environmental factors with drinking risk were found to be a moderate level, drinking for the reason of family and friends in terms of complications with other persons was found to be highest, and then job, self control, bad emotions, and social pressure on drinking were found in order.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be high in case of the only son, professional job, well-educated persons, and no history of hospitalization. Regarding factors for recurrent stress, stress was found to be high in case of the eldest son and being without religion, and the lower was the quality of life, the higher were recurrent stress and environmental factors with drinking risk.

It was found that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age, marriage, and job influenced the recurrence of alcohol dependence, and factors for recurrent stress, etc. also influenced recurrent alcohol dependence with drinking risks. Specially, the lower was the quality of life, the higher were factors for recurrent stress, and drinking risks, therefor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re required to be taken to prevent alcohol dependence from recurrence.

***Key Words** : quality of life, recurrent stress, alcohol dependents

I . 緒論

1. 연구 배경

인류역사와 함께 탄생한 술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인간은 술을 태초부터 의식이나 축제에 사용하는 등 오랜 세월을 걸친 인류의 문화 산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술은 '百藥의 長이자, 百毒의 毒령'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적당량의 술은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윤향유'로 작용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거나, 그릇된 음주 태도는 병적인 음주양상을 보이거나 직업적 및 사회적 기능장애를 초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인 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로, 알코올의존(증)을 한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과음,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 습관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증가하게 되면서, 알코올의존(증)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18세-64세의 알코올의존(증) 추정 환자 수는 약 139만명(유병율 4.3%)으로 나타났고,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7,917억원으로 GDP의 약 2.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또한 2003년도의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음주가 범죄 원인이 된 경우는 전체 형법범 994, 628건 가운데 93,041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비율도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처럼 알코올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의존자들은 술에 대한 갈망 자체보다도 중독증이 만성화되어 불안, 우울, 강박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시 양방신경정신과의 협진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하여 좀 더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자의 삶의 질과 재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초의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알코올 의존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재발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알코올 의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살펴본다.
- 2) 알코올 의존자의 재발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본다.
- 3)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위험 환경요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 4) 알코올 의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자는 과거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단주상태로 전국의 Alcoholic Anonymous(이하 AA)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환자들 가운데 재발을 하게 되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전문병원이나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과 단주모임에 참석하면서 오랜 기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재발을 하였던 환자들 총 100명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음주위험환경요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가 직접 AA모임이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찾아가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지시사항을 설명해 준 다음,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기입 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2) 알코올 의존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음주위험 환경요인(IDS-42) 42문항 등 총 8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자기보고식으로 답변하게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전국의 AA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들 중에서 매주 참여하고, 재발을 경험한 남녀 모두를 비단 AA 뿐만이 아니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1인 1-4회의 평균 3-40분의 면담과 상담을 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의 설문에 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와의 신뢰관계형성에 초점을 두어 부담을 주지 않게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Medical Outcome Study에서 개발한 SF-8(Short Form-8)을 이용하였다³⁾. 이는 ‘전반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통증’, ‘활력’,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정서적 역할’의 8개 영역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서 세계 전지역에서 건강수준 측정도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F-36(Short Form-36)의 축약판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61-0.72로 나타났고, 내용 타당도를 보기 위하여 SF-36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 영역별로 최저 0.70에서 최고 0.88로 매우 높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³⁾. 국내에서도 신영전 등⁴⁾이 번역하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내적 일치도를 보

는 cronbach's alpha 값이 0.87로 수용할 만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SF-36의 각 삶의 질 개념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개념과의 상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음주위험환경요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정신과 교과서와 각 알코올 전문병원의 상담자료 및 재발을 경고하는 증상들⁵⁾에서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IDS42는 알코올 의존자들의 음주위험 환경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Annis⁶⁾가 개발한 "The Inventory of Drinking Situation"을 윤명숙⁷⁾이 100문항에서 42문항으로 축소하여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값)는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0.90,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0.9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총 100부의 설문지 가운데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30부를 제외한 70부를 SPSSWIN 12.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1)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환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72.9%(51명), 여자 27.1%(19명)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5.7%(32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25.7%(18명), 30대 18.6%(13명), 20대 10.0%(7명)의 순이었다. 결혼상태 별로는 기혼이 전체의 48.6%(34명)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력 별로는 장자가 50.0%(35명)로 가장 많았고, 중간 28.6%(20명), 막내 15.7%(11명), 외아들이나 외동딸 5.7%(4명)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노동 및 기타가 전체의 34.3%(24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32.9%(23명), 서비스업 20.0%(14명), 사업 12.9%(9명)의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51.4%(36명)로 가장 많았다. 입원경력별로는 1-2회가 45.7%(32명)로 가장 많았으며, 7회 이상과 없음 각 20.0%(각 14명), 3-4회와 5-6회 각 7.1%(각 5명)의 순이었고, 입원시 병원 종류로는 정신과가 42.8%(30명), 내과 28.6%(20명), 기타 10.0%(7명)의 순이었으며, 입원시 입원경로별로는 기타의 경로로 입원한 경우가 전체의 35.7%(25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N)	rate(%)
sex	male	51	72.9
	female	19	27.1
age (yrs)	20-29	7	10.0
	30-39	13	18.6
	40-49	32	45.7
	≥50	18	25.7
marital status	single	19	27.1
	married	34	48.6
	divorce	10	14.3
	separation	7	10.0

born order	eldest	35	50.0
	middle	20	28.6
	youngest	11	15.7
	only son(daughter)	4	5.7
occupation	business	9	12.9
	specialist	23	32.9
	service	14	20.0
	labor and others	24	34.3
graduation	high school	36	51.4
	≥college	34	48.6
hospitalization (times)	none	14	20.0
	1-2	32	45.7
	3-4	5	7.1
	5-6	5	7.1
	≥7	14	20.0
special subject in hospitalization	psychiatry	30	42.8
	internal medicine	20	28.6
	others	7	10.0
	none	13	18.6
hospitalization pathway	voluntary	14	20.0
	by invitation of family	13	18.6
	forcibly	5	7.1
	others	25	35.7
	none	13	18.6
total		70	100.0

2.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1) 전체적인 삶의 질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SF-8) 평균은 45.00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통증이 평균 48.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건강상태가 평균 42.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subject

classification	M	SD
GH	42.53	7.18
PF	46.56	7.90
RP	45.89	9.64
BP	48.03	10.99
VT	43.46	8.76
SF	44.42	10.19
MH	43.00	9.37
RE	46.13	10.82
HRQoL	45.00	8.16

GH : general health PF : physical functioning RP : role physical
 BP : bodily pain VT : vitality SF : social functioning
 MH : mental health RE : role emotional
 HR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1)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남자 45.34점, 여자 44.10점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통증이 각각 평균 48.91점과 45.6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자는 정신건강이 평균 42.5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일반적 건강상태가 평균 40.11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Table 3.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sex

classification	male(N=51)		female(N=19)		t	p
	M	SD	M	SD		
GH	43.43	6.97	40.11	7.33	1.751	.084
PF	47.35	6.83	44.45	10.16	1.374	.174
RP	46.16	10.33	45.15	7.66	.389	.698
BP	48.91	12.40	45.67	5.35	1.101	.275
VT	43.38	10.07	43.68	3.50	-.129	.898
SF	44.13	11.02	45.20	7.77	-.389	.698
MH	42.50	10.54	44.34	4.99	-.725	.471
RE	46.85	11.24	44.20	9.64	.910	.366
HRQoL	45.34	8.87	44.10	5.96	.562	.576

(2)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은 20대가 평균 51.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 이상 평균 46.23점, 40대 46.10점, 30대 37.23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통증이 각각 평균 59.71점과 48.82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신체적 기능이 평균 43.30점으로, 50대 이상은 정서적 역할이 평균 49.7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대는 사회적 기능이 평균 49.47점으로, 30대는 정신건강이 평균 32.45점으로, 40대는 일반적 건강상태가 평균 43.07점으로, 50대 이상은 활력이 평균 39.73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신체적 역할, 통증, 활력,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정서적 역할 분야에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p < 0.05$), 일반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age

classification (yrs)	20-29 (N=7)		30-39 (N=13)		40-49 (N=32)		≥50 (N=18)		F	p
	M	SD	M	SD	M	SD	M	SD		
GH	46.43	0.00	38.01	5.49	43.07	7.85	43.31	7.23	2.732	.051
PF	48.33	0.00	43.30	6.13	46.92	8.51	47.59	9.16	.979	.408
RP	52.97	2.67	38.09	13.32	46.97	6.64	46.83	9.91	5.048	.003**
BP	59.71	2.80	37.71	8.20	48.82	7.75	49.55	13.77	8.892	.000***
VT	54.13	3.95	36.20	6.03	46.18	8.07	39.73	6.75	13.036	.000***
SF	49.47	0.00	34.80	13.06	45.85	7.53	46.84	10.33	6.086	.001**
MH	44.58	2.86	32.45	14.37	45.09	4.08	46.31	8.44	9.301	.000***
RE	54.61	5.77	37.31	14.41	45.86	8.08	49.70	9.75	6.066	.001**
HRQoL	51.28	2.26	37.23	9.23	46.10	6.20	46.23	8.49	7.138	.000***

** p<.01, *** p<.001

(3) 결혼상태에 따른 삶의 질

결혼상태에 따른 삶의 질은 기혼이 평균 48.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별거 평균 44.45점, 미혼 41.62점, 이혼 38.57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미혼, 기혼, 이혼 모두 통증이 각각 평균 46.19점, 52.30점, 41.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별거는 정서적 역할이 평균 52.68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미혼은 정신건강이 평균 35.16점으로, 기혼은 활력이 평균 44.89점으로, 이혼과 별거는 일반적 건강상태가 각각 평균 34.90점, 평균 35.9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통증, 사회적 기능에서는 기혼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과 정서적 역할에서는 별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p<0.05) 활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n	single (N=19)		married (N=34)		divorce (N=19)		separation (N=7)		F	p
	M	SD	M	SD	M	SD	M	SD		
GH	41.09	6.14	46.94	5.89	34.90	3.02	35.90	3.13	17.389	.000***
PF	44.85	4.19	50.29	7.31	35.87	7.68	48.33	0.00	14.270	.000***
RP	42.86	12.57	49.78	7.96	37.67	3.29	46.92	0.00	5.998	.001**
BP	46.19	13.36	52.30	9.68	41.59	3.20	41.54	9.62	4.408	.007**
VT	43.32	10.27	44.89	9.26	41.42	4.83	39.82	5.00	.885	.454
SF	38.04	11.41	49.68	8.50	40.41	0.00	41.87	9.30	8.050	.000***
MH	35.16	11.95	46.80	6.41	41.12	3.91	48.56	3.61	10.146	.000***
RE	41.48	13.92	50.50	7.38	35.58	5.12	52.68	3.85	9.693	.000***
HRQoL	41.62	9.84	48.90	7.05	38.57	2.19	44.45	1.83	7.330	.000***

** p<.01, *** p<.001

(4) 출생력에 따른 삶의 질

출생력에 따른 삶의 질 외동아들(딸)이 평균 48.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막내평균 51.03점, 중간 43.48점, 장자 43.25점의 순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장자, 막내, 외동아들(딸) 모두 통증이 각각 평균 46.84점, 56.05점, 58.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간은 정서적 역할이 평균 48.2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장자와 막내는 정신건강이 각각 평균 39.46점, 48.12점으로, 중간과 외동아들(딸)은 활력이 각각 평균 38.40점, 45.1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적 건강상태와 활력에 있어서는 막내가, 신체적 기능과 통증, 정신건강에서는 외동아들(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역할과 사회적 기능, 정서적 역할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Table 6.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born order

classification	eldest (N=35)		middle (N=20)		youngest (N=11)		only son(daughter) (N=4)		F	p
	M	SD	M	SD	M	SD	M	SD		
GH	41.75	7.83	39.14	4.29	49.77	4.78	46.43	0.00	7.351	.000***
PF	44.68	8.62	45.66	7.49	51.97	2.89	52.62	2.86	3.623	.017*
RP	44.29	11.40	44.37	7.92	51.41	3.56	52.22	3.53	2.406	.075
BP	46.84	11.53	43.54	10.29	56.05	3.74	58.92	3.71	5.356	.002**
VT	43.09	7.97	38.40	6.25	53.22	9.01	45.16	0.00	9.339	.000***
SF	42.77	10.98	43.27	8.15	48.31	10.69	53.81	2.89	2.156	.102
MH	39.46	10.49	45.23	7.53	48.12	3.41	48.84	7.17	4.163	.009**
RE	43.13	12.69	48.25	8.50	49.36	5.91	52.98	7.63	2.106	.108
HRQoL	43.25	9.06	43.48	6.58	51.03	4.79	51.37	3.48	4.054	.010*

* p<.05. **p<.01, ***p<.001

(5) 직업에 따른 삶의 질

직업에 따른 삶의 질은 전문직이 평균 51.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 및 기타 평균 44.00점, 사업 43.09점, 서비스업 37.47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과 전문직은 정서적 역할이 각각 평균 51.70점, 53.03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과 노동 및 기타는 통증이 각각 평균 40.26점, 49.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업과 전문직은 활력이 각각 평균 36.37점, 47.80점으로, 서비스업은 정서적 역할이 평균 35.16점으로, 노동 및 기타는 정신건강이 평균 40.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및 정서적 역할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이 가장 낮았으며, 통증과 활력에서는 전문직이 가장 높았고, 사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7).

Table 7.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occupation

classification	business (N=9)		specialist (N=23)		service (N=14)		labor and others (N=24)		F	p
	M	SD	M	SD	M	SD	M	SD		
GH	39.13	6.03	48.10	5.41	36.48	4.09	42.00	6.80	13.263	.000***
PF	47.48	6.09	52.81	2.41	35.57	7.74	46.64	4.69	33.433	.000***
RP	49.27	3.53	52.45	2.98	36.33	5.68	43.90	11.84	13.779	.000***
BP	36.88	8.10	55.88	7.93	40.26	6.28	49.23	10.44	15.246	.000***
VT	36.37	7.38	47.80	8.61	38.84	7.12	44.66	7.66	6.577	.001**
SF	41.73	11.18	52.42	5.76	38.73	5.53	41.08	11.00	10.117	.000***
MH	42.17	15.38	48.60	3.43	38.36	5.97	40.66	9.96	5.217	.003**
RE	51.70	7.63	53.03	3.68	35.16	4.93	43.84	12.88	14.325	.000***
HRQoL	43.09	7.25	51.38	4.12	37.47	4.48	44.00	8.73	14.027	.000***

** p<.01, ***p<.001

(6) 학력에 따른 삶의 질

학력에 따른 삶의 질은 대졸 이상이 평균 48.448점, 고졸이 평균 41.76점으로 대졸이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모두 통증이 각각 평균 52.46점과 43.8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대졸 이상은 활력이 평균 44.5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졸은 일반적 건강상태가 평균 39.3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적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통증,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정서적 역할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활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Table 8.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graduation

classification	high school (N=36)		≥ college (N=34)		t	p
	M	SD	M	SD		
GH	39.34	6.87	45.91	5.90	-4.278	.000***
PF	42.71	8.61	50.63	4.31	-4.817	.000***
RP	41.38	11.31	50.66	3.58	-4.572	.000***
BP	43.85	10.66	52.46	9.64	-3.539	.001**
VT	42.46	9.11	44.52	8.38	-.983	.329
SF	40.66	10.55	48.40	8.22	-3.409	.001**
MH	40.82	9.95	45.31	8.24	-2.047	.044*
RE	42.84	13.53	49.62	5.13	-2.743	.008**
HRQoL	41.76	8.78	48.44	5.81	-3.729	.000***

* p<.05, ** p<.01, *** p<.001

(7) 입원경력에 따른 삶의 질

입원경력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입원 경력 없음이 평균 48.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6회 평균 48.28점, 1-2회 46.05점, 3-4회 평균 42.09점, 7회 이상 평균 38.53점의 순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입원경력 없음, 1-2회, 3-4회, 5-6회는 통증이 각각 평균 50.46점, 49.06점, 45.77점, 55.53점으로 가장 높았고, 7회 이상은 신체적 기능이 평균 43.1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없음, 1-2회, 3-4회, 5-6회는 일반적 건강상태가 각각 평균 45.97점, 42.17점, 40.01점, 43.22점으로, 7회 이상은 신체적 기능이 평균 43.1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신체적 역할과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는 입원경력 없음이 가장 높았고, 7회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정신건강과 정서적 역할에 있어서는 5-6회가 가장 높았고, 7회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적 건강상

대, 신체적 기능, 통증, 활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Table 9.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hospitalization

classification (times)	none (N=14)		1-2 (N=32)		3-4 (N=5)		5-6 (N=5)		≥7 (N=14)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GH	45.97	5.67	42.17	7.81	40.01	3.59	43.22	4.39	40.56	8.13	1.273	.290
PF	51.19	2.97	45.96	8.62	45.03	4.52	48.46	7.66	43.15	9.08	2.153	.084
RP	50.45	3.66	48.59	6.70	40.35	3.67	47.87	8.36	36.41	14.01	7.137	.000***
BP	50.46	8.35	49.06	11.62	45.77	5.69	55.53	7.18	41.38	12.01	2.319	.066
VT	47.25	10.38	44.65	7.58	37.68	4.18	41.42	5.12	39.75	10.04	2.185	.080
SF	47.83	7.70	46.32	7.72	42.22	4.05	49.31	8.13	35.69	14.50	4.256	.004**
MH	49.04	3.51	43.26	8.35	44.15	3.39	49.72	3.70	33.57	11.24	7.954	.000***
RE	49.41	5.19	48.39	9.44	41.53	0.00	50.69	8.36	37.73	15.64	3.739	.008**
HRQoL	48.95	5.05	46.05	6.97	42.09	2.27	48.28	6.62	38.53	11.18	4.155	.005**

** p<.01, *** p<.001

3. 연구대상자의 재발관련 스트레스와의 관계

1) 재발 스트레스의 제요인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정신·심리적 요인은 평균 2.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요인 평균 2.02점, 가정적 요인 평균 1.88점, 사회적 요인 평균 1.81점, 기타요인 평균 1.15점의 순이었다. 즉 정신·심리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요인이 가장 낮았다(Table 10).

Table 10. Relapse-related stress of subject

classification	M	SD
physical factor	2.02	.55
domestic factor	1.88	.57
social factor	1.81	.52
psychological factor	2.09	.61
other factor	1.15	.41
total	1.92	.41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1) 성별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남·여 모두 정신·심리적 요인이 각각 평균 2.13점과 1.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15점, 1.1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남자가 평균 1.90점으로 여자(평균 1.54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적 요인, 가정적 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1).

Table 11. Relapse-related stress by sex

classification	male(N=51)		female(N=19)		t	p
	M	SD	M	SD		
physical factor	2.08	.61	1.86	.34	1.449	.152
domestic factor	1.87	.61	1.92	.46	-.338	.737
social factor	1.90	.45	1.54	.61	2.738	.008**
psychological factor	2.13	.68	1.98	.31	.920	.361
other factor	1.15	.39	1.16	.47	-.097	.923
total	1.97	.42	1.78	.34	1.796	.077

** p<.01

(2) 연령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연령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20대, 30대, 40대 모두 정신·심리적 요인이 각각 평균 2.36점, 2.64점, 1.8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이상은 신체적 요인이 평균 2.3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모두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21점, 1.23점, 1.19점, 1.0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신체적 요인, 정신·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요인에서 20대가, 정신·심리적 요인에서는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2).

Table 12. Relapse-related stress by age

classification (yrs)	20-29 (N=7)		30-39 (N=13)		40-49 (N=32)		≥50 (N=18)		F	p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factor	1.76	.11	2.37	.41	1.77	.44	2.32	.65	8.222	.000***
domestic factor	1.76	.19	1.76	.32	1.83	.46	2.11	.87	1.399	.251
social factor	2.03	.49	1.79	.44	1.68	.58	1.94	.45	1.498	.223
psychological factor	2.36	.00	2.64	.46	1.88	.44	1.96	.81	.6860	.000***
other factor	1.21	.57	1.23	.56	1.19	.42	1.00	.00	1.116	.349
total	2.01	.17	2.14	.26	1.76	.38	1.99	.52	3.504	.020*

* p<0.05 *** p<.001

(3) 결혼상태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결혼상태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미혼과 별거는 정신·심리적 요인이 각각 평균 2.61점, 2.6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기혼은 신체적 요인이 평균 1.84점으로, 이혼은 가정적 요인이 평균 2.5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미혼, 기혼, 이혼, 별거 모두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08점, 1.18

점, 1.30점, 1.0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이혼이 가장 높았고, 기혼이 가장 낮았으며, 정신·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미혼이 가장 높았고, 기혼이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3).

Table 13. Relapse-related stress by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none (N=19)		married (N=34)		divorce (N=19)		separation (N=7)		F	p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factor	2.17	.46	1.84	.63	2.20	.35	2.22	.36	2.505	.067
domestic factor	1.82	.31	1.70	.57	2.50	.67	2.07	.30	6.850	.000***
social factor	1.94	.42	1.71	.46	1.85	.90	1.82	.37	.776	.512
psychological factor	2.61	.32	1.76	.55	1.89	.18	2.60	.60	17.138	.000***
other factor	1.08	.34	1.18	.41	1.30	.63	1.00	.00	.989	.404
total	2.14	.17	1.72	.43	1.99	.41	2.14	.37	6.506	.001**
total	2.14	.17	1.72	.43	1.99	.41	2.14	.37	6.506	.001**

** p<0.01 *** p<.001

(4) 출생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출생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장자는 정신·심리적 요인이 평균 2.3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중간은 사회적 요인이 평균 2.05점으로, 막내와 외동아들(딸)은 신체적 요인이 각각 평균 1.94점, 1.8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장자, 중간, 막내, 외동아들(딸) 모두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17점, 1.15점, 1.00점, 1.38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신·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장자가 가장 높았고, 막내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4).

Table 14. Relapse-related stress by born order

classification	eldest (N=35)		middle (N=20)		youngest (N=11)		only son(daughter) (N=4)		F	p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factor	2.06	.51	2.02	.76	1.94	.34	1.89	.07	.214	.886
domestic factor	1.97	.56	1.92	.67	1.71	.42	1.46	.08	1.381	.256
social factor	1.70	.54	2.05	.38	1.66	.47	1.88	.85	2.457	.071
psychological factor	2.30	.51	1.98	.72	1.75	.54	1.77	.39	3.507	.020*
other factor	1.17	.48	1.15	.29	1.00	.00	1.38	.75	.915	.439
total	1.97	.40	1.96	.43	1.71	.39	1.76	.43	1.432	.241

* p<.05

(5) 직업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직업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사업과 노동 및 기타는 정신·심리적 요인이 각각 평균 2.79점, 2.3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직은 가정적 요인이 평균 1.75점으로, 서비스업은 신체적 요인이 평균 2.36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업, 전문직, 서비스업, 노동 및 기타 모두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00점, 1.13점, 1.32점, 1.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가장 낮았으며, 정신·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사업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5).

Table 15. Relapse-related stress by occupation

classification	business (N=9)		specialist (N=23)		service (N=14)		labor & other (N=24)		F	p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factor	2.19	0.29	1.72	0.56	2.36	0.46	2.05	0.55	5.038	.003*
domestic factor	1.78	0.44	1.75	0.64	2.17	0.78	1.89	0.31	1.775	.161
social factor	1.90	0.34	1.69	0.38	2.04	0.84	1.75	0.43	1.548	.211
psychological factor	2.79	0.60	1.73	0.59	1.79	0.34	2.35	0.37	15.130	.000***
other factor	1.00	0.00	1.13	0.27	1.32	0.64	1.13	0.42	1.271	.292
total	2.19	0.34	1.69	0.44	1.99	0.37	1.98	0.33	4.700	.005**

* p<.05, ** p<.01, *** p<.001

(6) 학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학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고졸은 신체적 요인이 평균 2.2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대졸 이상은 정신·심리적 요인이 평균 2.0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고졸과 대졸 이상 모두 기타요인이 각각 평균 1.17점, 1.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는 고졸이 대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요인, 사회적, 정신·심리적 요인,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6).

Table 16. Relapse-related stress by graduation

classification	high school (N=36)		≥college (N=34)		t	p
	M	SD	M	SD		
physical factor	2.28	.45	1.74	.52	4.631	.000***
domestic factor	2.01	.52	1.75	.59	1.950	.055
social factor	1.76	.58	1.85	.45	-.667	.507
psychological factor	2.10	.57	2.09	.65	.062	.951
other factor	1.17	.48	1.13	.33	.347	.730
total	1.97	.36	1.86	.46	1.077	.285

*** p<.001

(7) 입원경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

입원경력에 따른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입원경력 없음과 1-2회는 정신·심리적 요인이 각각 평균 1.98점, 2.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4회는 사회적 요인이 평균 2.82점으로, 5-6회는 가정적 요인이 평균 2.10점으로, 7회 이상은 신체적 요인이 평균 2.5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없음, 1-2회, 5-6회, 7회 이상은 기타 요인이 각각 평균 1.14점, 1.00점, 1.00점, 1.07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3-4회는 가정적 요인이 신체적 요인이 평균 2.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는 입원경력 7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 없음이 가장 낮았으며, 가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3-4회가 가장 높았고, 7회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입원경력 1-2회가 가장 높았고, 5-6회가 가장 낮았으며, 기타 요인에 있어서는 3-4회가 가장 높았고, 1-2회가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7).

Table 17. Relapse-related stress by hospitalization

classification (times)	none (N=14)		1-2 (N=32)		3-4 (N=5)		5-6 (N=5)		≥7 (N=14)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factor	1.68	.45	1.96	.40	2.17	.12	1.83	.94	2.51	.58	5.531	.001**
domestic factor	1.71	.37	1.95	.50	2.40	.68	2.10	1.28	1.63	.30	2.558	.047*
social factor	1.91	.31	1.69	.40	2.82	.33	1.94	.76	1.56	.50	8.910	.000***
psychological factor	1.98	.30	2.35	.55	2.26	.38	1.31	.50	1.81	.72	5.724	.001**
other factor	1.14	.23	1.00	.00	2.50	.00	1.00	.00	1.07	.27	9.231	.000***
total	1.84	.26	1.96	.38	2.45	.03	1.69	.72	1.79	.41	3.452	.013*

* p<.05, ** p<.01, *** p<.001

5. 연구대상자의 음주 위험환경요인

1) 음주위험 제 환경요인

음주위험 제 환경요인은 평균 1.45점으로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어 가족 친구 문제가 평균 1.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문제 평균 1.62점, 자기통제실험 평균 1.59점, 기분 나쁜 감정들 평균 1.58점,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평균 1.57점의 순이었다(Table 18).

Table 18. Drinking situation of subject

classification	M	SD
drinking situation	1.45	1.01
ill-humored feelings	1.58	1.01
physical inconvenience	1.10	.99
glad feelings	1.29	1.12
self-command experiment	1.59	1.20
desire & temptation	1.50	1.16
trouble with others	1.56	1.10
social rejection	1.39	1.12
job factor	1.62	1.19
tension	1.47	1.14
family & friend factor	1.75	1.14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57	1.68
joyful time with others	1.29	1.20
social drinking	1.38	1.26
intimacy	1.21	1.17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위험 제 환경요인

(1) 성별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성별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가족친구문제가 있을 때 음주하는 상황

이 평균 1.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평균 1.83점, 기분 나쁜 감정들 평균 1.69점의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자기통제실험이 있을 때 음주하는 상황이 평균 1.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친구문제 평균 1.49점, 기쁜 감정들 평균 1.29점의 순이었다.

한편 갈망과 유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긴장,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친밀감 등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분 나쁜 감정들, 신체적 불편감, 기쁜 감정들, 자기통제실험, 직장문제, 가족친구문제, 사회적 음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9).

Table 19. Drinking situation by sex

classification	male(N=51)		female(N=19)		t	p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58	1.08	1.10	.71	1.807	.075
ill-humored feelings	1.69	1.09	1.28	.69	1.523	.132
physical inconvenience	1.15	1.13	.96	.44	.695	.489
glad feelings	1.28	1.23	1.29	.95	-.016	.987
self-command experiment	1.62	1.25	1.51	1.06	.323	.748
desire & temptation	1.66	1.20	1.05	.93	2.005	.049*
trouble with others	1.72	1.13	1.13	.92	2.040	.045*
social rejection	1.59	1.16	.86	.83	2.510	.014*
job factor	1.78	1.21	1.21	1.05	1.801	.076
tension	1.67	1.15	.95	.97	2.428	.018*
family & friend factor	1.85	1.18	1.49	.98	1.176	.244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83	1.80	.86	1.03	2.232	.029*
joyful time with others	1.47	1.24	.82	.93	2.091	.040*
social drinking	1.54	1.26	.95	1.19	1.781	.079
intimacy	1.41	1.24	.68	.76	2.371	.021*

* p<.05

(2) 연령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연령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30대가 평균 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 평균 1.71점, 40대 1.34점, 20대 .24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자기통제실험이 각각 평균 .39점과 2.31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가족친구문제가 평균 1.78점으로, 50대 이상은 갈망과 유혹이 평균 2.1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는 신체적 불편감이 각각 평균 .04점, 1.46점, .8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50대 이상은 친밀감이 평균 1.22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기분 나쁜 감정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직장문제, 가족친구문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사회적 음주, 친밀감에 있어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불편감, 기쁜 감정들, 자기통제실험, 갈망과 유혹, 긴장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0).

(3)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별거가 평균 2.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혼 평균 1.54점, 이혼 1.50점, 기혼 1.27점의 순이었다. 즉 별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혼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가족친구문제와 사회적 음주가 각 평균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은 가족친구문제가 평균 1.51점으로, 이혼은 자기통제실험이 평균 2.50점으로, 별거는 기쁜 감정들이 평균 2.7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미혼, 이혼은 신체적 불편감이 각각 평균 1.04점, .8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기혼은 친밀감이 평균 .98점으로, 별거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음주가 각 평균 1.43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쁜 감정들에 있어서는 별거가 가장 높았고, 이혼이 가장 낮았으며, 자기통제실험에 있어서는 이혼이 가장 높았고, 기혼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분 나쁜 감정들, 신체적 불편감, 갈망과 유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직장문제, 긴장, 가족친구문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 사회적 음주, 친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1).

Table 20. Drinking situation by age

classification (yrs)	20-29 (N=7)		30-39 (N=13)		40-49 (N=32)		≥ 50 (N=18)		F	p
	M	SD	M	SD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24	.64	2.01	1.10	1.34	.83	1.71	.98	6.390	.001**
ill-humored feelings	.25	.66	2.17	.83	1.46	.89	1.86	.97	8.010	.000***
physical inconvenience	.04	.09	1.46	1.27	.86	.58	1.67	1.12	7.442	.000***
glad feelings	.18	.47	2.15	1.01	1.02	.99	1.57	1.25	6.928	.000***
self-command experiment	.39	1.04	2.31	1.32	1.38	.98	1.92	1.13	5.641	.002**
desire & temptation	.32	.85	2.06	1.21	1.18	.94	2.11	1.06	7.658	.000***
trouble with others	.26	.69	1.96	1.20	1.51	.99	1.87	1.04	5.026	.003**
social rejection	.14	.38	1.87	1.19	1.30	1.00	1.69	1.15	4.864	.004**
job factor	.29	.76	2.23	1.28	1.54	1.06	1.85	1.13	5.118	.003**
tension	.29	.76	1.64	1.24	1.41	1.06	1.93	1.05	4.087	.010*
family & friend factor	.33	.88	2.08	1.26	1.78	.99	2.02	1.04	5.118	.003**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25	.66	2.13	1.24	1.74	2.01	1.36	1.32	4.087	.010*
joyful time with others	.21	.57	1.96	1.23	1.29	1.06	1.25	1.33	2.260	.090
social drinking	.24	.63	2.08	1.23	1.41	1.19	1.28	1.32	3.630	.017*
intimacy	.19	.50	1.85	1.26	1.17	1.00	1.22	1.34	3.389	.023*

* p<.05, ** p<.01, *** p<.001

Table 21. Drinking situation by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none (N=19)		married (N=34)		divorce (N=19)		separation (N=7)		F	p
	M	SD	M	SD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54	1.21	1.27	1.00	1.50	.57	2.03	.92	1.192	.320
ill-humored feelings	1.70	1.28	1.37	.94	1.55	.60	2.29	.76	1.783	.159
physical inconvenience	1.04	1.24	.99	.90	.88	.41	2.07	.89	2.744	.050
glad feelings	1.37	1.41	1.06	.94	.90	.84	2.71	.76	5.187	.003**
self-command experiment	1.59	1.48	1.24	1.05	2.50	.68	1.96	.97	3.448	.021*
desire & temptation	1.45	1.35	1.43	1.12	1.80	.75	1.54	1.40	.277	.842
trouble with others	1.60	1.20	1.40	1.18	1.46	.66	2.36	.73	1.517	.218
social rejection	1.54	1.21	1.24	1.17	1.00	.63	2.29	.76	2.356	.080
job factor	1.65	1.28	1.45	1.29	1.70	.82	2.29	.76	.974	.411
tension	1.42	1.20	1.42	1.20	1.17	.88	2.29	.76	1.489	.226
family & friend factor	1.77	1.28	1.51	1.19	1.97	.53	2.57	.71	.132	.941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75	1.28	1.47	2.09	1.65	.79	1.43	1.51	1.489	.226
joyful time with others	1.64	1.24	1.03	1.21	1.38	.78	1.50	1.43	.132	.941
social drinking	1.77	1.30	1.09	1.24	1.60	.99	1.43	1.51	1.168	.329
intimacy	1.51	1.22	.98	1.20	1.17	.71	1.57	1.36	1.073	.366

* p<.05, ** p<.01

(4) 출생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출생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중간이 평균 1.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동아들(딸) 평균 1.39점, 장자 1.32점, 막내 1.02점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장자는 자기 통제실험이 평균 1.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간과 외동아들(딸)은 가족친구문제가 각 평균 2.35점, 2.08점으로, 막내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평균 1.7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장자는 친밀감이 평균 .9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간과 막내는 기쁜 감정들이 각 평균 1.56점, .27점으로, 외동아들(딸)은 신체적 불편감이 평균 .8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불편감, 기쁜 감정들, 자기통제실험, 가족 친구문제에 있어서는 중간이 가장 높았고, 막내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갈망과 유혹에 있어서는 외동아들(딸)이 가장 높았고, 막내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거부에서는 중간이 가장 높았고, 외동아들(딸)이 가장 낮았으며, 긴장에 있어서는 중간이 가장 높았고, 장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분 나쁜 감정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직장문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 사회적 음주, 친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2).

Table 22. Drinking situation by born order

classification	eldest (N=35)		middle (N=20)		youngest (N=11)		only son (daughter) (N=4)		F	p
	M	SD	M	SD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32	1.08	1.92	1.01	1.02	.67	1.39	.20	2.427	.073
ill-humored feelings	1.44	1.10	1.75	.87	1.61	1.17	1.75	.00	.433	.730
physical inconvenience	1.04	.99	1.65	1.05	.36	.38	.81	.38	4.910	.004**
glad feelings	1.45	1.22	1.56	1.18	.27	.34	1.25	.00	3.846	.013*
self-command experiment	1.64	1.28	2.05	1.09	.52	.48	1.81	.63	4.592	.006**
desire & temptation	1.53	1.22	1.84	1.19	.64	.62	1.88	.25	3.008	.036*
trouble with others	1.35	1.18	2.12	1.03	1.26	.85	1.46	.25	2.616	.058
social rejection	1.19	1.17	2.00	1.10	1.15	.81	.75	.17	3.225	.028*
job factor	1.56	1.38	2.05	1.01	1.18	.83	1.25	.50	1.559	.208
tension	1.15	1.21	2.08	1.05	1.27	.87	1.75	.17	3.319	.025*
family & friend factor	1.48	1.15	2.35	1.06	1.43	1.06	2.08	.17	3.235	.028*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16	1.30	2.26	2.34	1.73	1.27	1.19	.38	2.006	.122
joyful time with others	1.07	1.22	1.80	1.33	1.21	.81	1.00	.34	1.769	.162
social drinking	1.17	1.31	1.80	1.40	1.36	.92	1.17	.34	1.097	.357
intimacy	.96	1.18	1.80	1.30	1.06	.71	.84	.33	2.575	.061

* p<.05, ** p<.01

(5) 직업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직업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사업이 평균 1.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평균 1.74점, 노동 및 기타 1.31점, 전문직 1.29점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업은 기쁜 감정들이 평균 2.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은 직장문제가 평균 1.62점으로, 서비스업은 자기통제실험이 평균 2.63점으로, 노동 및 기타는 가족친구문제가 평균 1.7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업은 긴장이 평균 1.3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직은 신체적 불편감이 평균 .80점으로, 서비스업은 기쁜 감정들이 평균 .95점으로, 노동 및 기타는 친밀감이 평균 .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통제실험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분 나쁜 감정들, 신체적 불편감, 기쁜 감정들, 갈망과 유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직장문제, 긴장, 가족친구문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 사회적 음주, 친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3).

Table 23. Drinking situation by occupation

classification	business (N=9)		specialist (N=23)		service (N=14)		labor & others (N=24)		F	p
	M	SD	M	SD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79	1.24	1.29	.98	1.74	.65	1.31	1.11	1.072	.367
ill-humored feelings	1.92	.88	1.41	1.00	1.61	.51	1.58	1.28	.533	.661
physical inconvenience	1.33	1.25	.80	.76	1.29	1.00	1.18	1.08	1.055	.374
glad feelings	2.17	1.07	1.13	1.14	.95	.71	1.30	1.31	2.416	.074
self-command experiment	2.00	1.50	1.09	.82	2.63	.60	1.31	1.27	7.145	.000***
desire & temptation	1.75	1.35	1.43	1.10	2.04	.75	1.15	1.25	2.005	.122
trouble with others	1.64	1.32	1.51	1.15	1.73	.73	1.48	1.21	.173	.915
social rejection	1.67	1.32	1.33	1.15	1.36	.88	1.36	1.20	.204	.893
job factor	1.89	1.42	1.62	1.28	1.79	.70	1.43	1.28	.436	.728
tension	1.33	1.32	1.61	1.17	1.55	.98	1.35	1.19	.262	.853
family & friend factor	1.67	1.32	1.49	1.10	2.21	.62	1.77	1.30	1.196	.318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92	1.44	1.59	2.36	1.95	.87	1.20	1.30	.750	.526
joyful time with others	1.89	1.42	1.01	1.17	1.74	.94	1.09	1.19	2.165	.100
social drinking	1.89	1.42	1.04	1.19	1.91	1.02	1.21	1.32	2.080	.111
intimacy	1.89	1.42	.97	1.16	1.57	.97	.97	1.10	2.218	.094

*** p<.001

(6) 학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학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고졸과 대졸이상이 각 평균 1.45점으로 같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이상 모두 가족친구문제가 있을 때 음주하는 상황이 평균 1.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졸은 자기통제 실험 평균 1.81점, 갈망과 유혹 평균 1.56점의 순이었으며, 대졸 이상은 직장문제 평균 1.75점, 다른 사람과의 갈등 평균 1.75점의 순이었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 모두 즉 기분 나쁜 감정들, 신체적 불편감, 기쁜 감

정들, 자기통제실험, 갈망과 유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직장 문제, 긴장, 가족친구문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 사회적 음주, 친밀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4).

Table 24. Drinking situation by graduation

classification	high school (N=36)		≥ college (N=34)		t	p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45	1.19	1.45	.79	.002	.998
ill-humored feelings	1.49	1.13	1.66	.88	-.695	.489
physical inconvenience	1.26	1.24	.93	.62	1.399	.166
glad feelings	1.16	1.16	1.42	1.16	-.936	.353
self-command experiment	1.81	1.39	1.36	.92	1.574	.120
desire & temptation	1.56	1.29	1.43	1.01	.490	.626
trouble with others	1.44	1.24	1.68	.94	-.901	.371
social rejection	1.29	1.24	1.50	.99	-.790	.433
job factor	1.50	1.28	1.75	1.10	-.892	.375
tension	1.33	1.27	1.62	.99	-1.044	.300
family & friend factor	1.66	1.31	1.85	.92	-.722	.473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1.53	1.30	1.61	2.02	-.204	.839
joyful time with others	1.40	1.26	1.19	1.13	.738	.463
social drinking	1.50	1.33	1.26	1.20	.808	.422
intimacy	1.30	1.25	1.12	1.09	.635	.528

(7) 입원경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

입원경력에 따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입원경력 3-4회가 평균 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회 이상 평균 1.81점, 1-2회 평균 1.31점, 없음 평균 1.54점, 5-6회 평균 .63점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1-2회와 5-6회는 가족친구문제가 각각 평균 1.61점과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없음은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평

균 2.68점으로, 3-4회는 자기통제실험이 평균 2.85점으로, 7회 이상은 가족친구문제와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각 평균 1.9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없음과 3-4회는 신체적 불편감이 각 평균 .75점, .5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5-6회 7회 이상은 기쁜 감정들이 각 평균 .10점, 1.38점으로, 1-2회는 친밀감이 평균 .8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불편감에 있어서는 7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 3-4회가 평 가장 낮았으며, 기쁜 감정들, 다른 사람들과의 기쁜 시간들, 친밀감에 있어서는 7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 5-6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통제실험, 사회적 음주에 있어서는 입원경력 3-4회가 가장 높았고, 5-6회가 가장 낮았으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있어서는 입원경력 없음이 가장 높았고, 5-6회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분 나쁜 감정들, 갈망과 유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거부, 직장문제, 긴장, 가족친구문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5).

Table 25. Drinking situation by hospitalization

classification (times)	none (N=14)		1-2 (N=32)		3-4 (N=5)		5-6 (N=5)		≥7 (N=14)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drinking situation	1.54	.92	1.31	.94	1.95	.14	.63	.86	1.81	1.31	1.835	.133
ill-humored feelings	1.91	.65	1.43	1.02	2.15	.34	.80	1.10	1.64	1.25	1.783	.143
physical inconvenience	.75	.54	1.09	.87	.55	.21	.40	.55	1.91	1.39	4.529	.003**
glad feelings	.88	.78	1.60	1.26	1.35	.14	.10	.14	1.38	1.32	2.589	.045*
self-command experiment	.91	.82	1.59	1.09	2.85	.14	.20	1.64	1.96	1.39	3.413	.014*
desire & temptation	1.14	1.04	1.44	1.11	2.45	.11	.90	1.23	1.86	1.34	1.982	.108
trouble with others	1.77	1.09	1.40	1.05	2.10	.22	.63	.87	1.84	1.32	1.770	.146
social rejection	1.69	1.11	1.22	1.08	1.40	.28	.40	.55	1.83	1.33	2.081	.093
job factor	1.71	1.12	1.54	1.24	2.53	.45	.67	.91	1.74	1.28	1.684	.164
tension	1.79	1.10	1.25	1.12	1.87	.18	.53	.73	1.86	1.33	2.087	.093
family & friend factor	1.91	1.17	1.61	1.00	2.60	.37	.93	1.28	1.93	1.38	1.694	.162
social pressure for drinking	2.68	2.55	.97	1.20	2.15	.22	.70	.96	1.93	1.38	3.708	.009**
joyful time with others	1.74	1.09	.93	1.15	1.77	.37	.40	.55	1.85	1.37	3.237	.017*
social drinking	1.86	1.10	.97	1.20	2.33	.62	.40	.55	1.86	1.41	3.859	.007**
intimacy	1.62	1.10	.89	1.13	1.20	.18	.40	.55	1.83	1.35	2.928	.027*

* p<.05, ** p<.01

6.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6>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연령은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부적의 상관관계($r=-.280, p<.05$)를 보였으며, 결혼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부적의 상관관계($r=-.467, p<.001$),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r=.462, p<.001$)를 보였다. 또한 학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r=.412, p<.001$)를 보였고, 입원경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부적의 상관관계($r=-.244, p<.5$)를 보였다.

한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부적의 상관관계($r=-.365, p<.01$), 음주위험 환경요인과 부적의 상관관계($r=-.681, p<.001$)를 보였으며, 재발관련 스트레스는 음주위험 환경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r=.571, p<.001$)를 보였다.

Table 38.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factors

classification	sex	age	marital status	born order	occupati on	graduati on	hospitali zation	HRQoL	relapse -related stress	drinking situatio n
sex	1.000									
age	-.173	1.000								
marital status	-.208	-.298*	1.000							
born order	.289*	.569***	-.229	1.000						
occupation	.101	.409***	-.401**	.241*	1.000					
graduation	.143	.362**	-.371**	.343**	.100	1.000				
hospitalizagion	-.064	-.079	.300*	-.286*	-.135	-.300	1.000			
HRQoL	.068	.223	-.467***	.216	.089	.412***	-.244*	1.000		
relapse-related stress	.213	-.280*	.462***	-.141	-.125	-.130	.099	-.365**	1.000	
drinking situation	.214	.038	.176	.127	.100	.000	-.045	-.681**	.571***	1.000

* $p<.05$, ** $p<.01$, *** $p<.001$

IV. 고찰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해에만 20조원을 넘으며 2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도위험 음주자’라고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조기 사망, 생산성 감소 등의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무려 20조99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4조900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1).

알코올의존(증), 간질환, 심장질환 등 음주관련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조7917억원으로 추산됐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000명, 부상자는 5만명이 넘었다. 2001년 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의 6.8%인 221만 명이 알코올 사용 장애(습관성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를 겪고 있었으며 음주단일요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7%(2만2000명)를 차지하고 있었다1).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음주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 음주율이 2001년 27.7%에서 2005년 36.3%로 증가하는 등 전체 성인 음주율이 50%를 넘어섰다. 2004년 주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한국 성인 1명이 소비한 술은 소주 72병, 맥주 108병에 이르렀다1).

무엇보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여성은 소주 5잔·소주 2홉들이 1병은 8잔 분량임)을 넘어서는 ‘고도위험 음주자’의 증가폭이 크다. 2001년만 해도 전 인구의 19.1%만이 ‘고도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2005년에는 26.1%로 증가했다1).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와 30대, 20대의 순으로 많았는데, 이 결과는 Kolb와 Brodie8)가 알코올 장애환자의 5/6는 30-50세라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생의 가장 생산적 연령 군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 가정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30대 후반이나 40대에서 알코올의존(증)이 문제가 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국내의 다른 연구(9,10)들과 동일한 결과로 여성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11).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활발한 사회 직업적 활동으로 인한 음주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여성의 알코올의존(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1)에 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장자가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부모가 장자에게 보호와 기대수준을 높게 설정해 놓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기에 가서는 부모와 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오는 부담감과 긴장이 크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과 출생순위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외국의 보고(13)도 있는 것을 볼 때 사회문화적인 특성과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자 모두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이었다는 것은 IMF 이후의 실업률과 명예퇴직 등, 경제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결코 본인이 알코올의존(증)을 병으로 인식하여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혼자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사회의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서양사회와의 가족 구조 및 유교 등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결혼과탄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건강상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알코올로 인한 근육무력과 진통효과의 소실, 운동부족과 한 번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의존자의 특성상 식사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한 영양부족 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수준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이 가장 높았고, 이혼이 가장 낮았다. 이는 기혼인 사람들이 미혼이나 이혼인 경우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들(14-1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체

계 유무가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출생력에 따라서는 외동아들(딸)이 가장 높았고 장자가 가장 낮았는데, 외동아들(딸)에 대한 가족내에서의 우대와 장자(녀)에 대한 책임감에 따르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이 가장 낮았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이 고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소득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원경력에 따라서는 입원경력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알코올의존(증)은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진행적이기 때문에 잦은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⁴⁾, 이에 따라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코올의존(증)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동일한 경과나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¹⁸⁾. 특히 만성적이고 진행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은 알코올의존(증) 치료영역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19,20)}이다. 재발가능성의 감소가 치료의 주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된 알코올 의존자의 50%~60%가 3개월 이내에 재발한다²¹⁾.

대부분의 알코올 의존자들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매 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하게 된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후 재발율은 약 70%에 이르며 대다수의 재발 시기는 6개월이다²²⁾. 재발 요인으로는 신체적, 가정적, 사회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한 각종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발스트레스요인은 1.9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재발관련 스트레스에 있어서 정신 심리적 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가정적, 사회적, 기타요인의 순이었는데, 이는 알코올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술에 대한 갈망을 높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에 의하여 술을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재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 때 음주에 대한 갈망도 높아지고 그만큼 음주위험 상황

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의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환경요인 등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 의존자의 스트레스 등이 높을수록 음주위험상황도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삶의 질도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재발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음주위험상황도 줄어들게 되어 알코올의존(증) 재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나 결혼상태, 직업 등 인구학적 요인이 알코올의존(증)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재발스트레스요인 등이 음주위험환경요인과 함께 알코올의존(증) 재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삶의 질이 낮을수록 재발스트레스요인, 음주위험환경요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의존(증) 재발의 예방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국의 AA를 다 찾아갈 수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일부 지방의 모임은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상의 모임을 통해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 중에서도 한 번 이상 재발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수의 표본을 선정할 수 없었으며, 설문의 내용이 개방형으로 환자 자신의 기입에 의존한 점이 많아서 그 것을 해석하는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V. 결론

알코올 의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재발관련 스트레스 등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과거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단주상태에 있었으나 재발하게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과 재발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위험 환경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40대, 출생력별로는 장자,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노동 및 기타가, 학력별로는 모두 고졸이상, 입원경력별로는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 시 병원 종류로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경로별로는 자의반 타의반 입원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삶의 질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건강 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재발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정신·심리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타요인의 순이었다.
4. 연구대상자의 음주위험 환경요인에 있어, 전체적인 음주위험 환경요인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어 가족 친구 문제로 음주하는 상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문제, 자기통제실행, 기분 나쁜 감정들,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순이었다.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재발관련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외아들인 경우, 전문직, 고학력, 입원경력이 없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재발스트레스요인과 관련해서는 장자인 경우가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7. 삶의 질과 재발관련 스트레스와 음주위험 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낮을수록 재발 스트레스, 음주위험 환경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나 결혼상태, 직업 등 인구학적 요인이 알코올의존(증)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발스트레스 요인 등이 음주위험환경요인과 함께 알코올의존(증) 재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삶의 질이 낮을수록 재발스트레스요인, 음주위험환경요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의존(증) 재발의 예방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 건강생활 실천사업 안내, 2007, 보건복지부
2. 서재관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공청회 자료, 서재관의원실, 2004.
3. Ware JE, Kosinski M, Dewey JE, Gandek B : How to score and interpret single-item health status measure : a manual for users of the SF-8 health survey, Lincoln (RI), Quality Metric Incorporated, 2001.
4. 신영전, 유원섭, 양영란, 김완호, 임재영 : 재가 장애인의 기능 및 삶의 질 평가 척도개발, 한양대학교 지역사회보건연구소, 2001.
5. 천주의 성 요한 알코올 상담치료센터 : 회복에 이르는 길, 서울, 하나의학사, 2006.
6. Annis HM : Inventory of Drinking situations, Toronto, Ontario, Canada,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1982.
7. 윤명숙 : 알코올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8. Kolb LC,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sounders Co., 1982.
9. 신수철, 정한용, 한선호 :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알코올리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90; 29(6): 1372-1380.
10. 오태원, 윤석하 : 종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알콜성장애자들, 신경정신의학, 1980; 19(3): 221-233.
11. 조호철, 김정휘, 이시형 : 한국인의 음주양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5; 14(1): 1-14.
12. 이영호 : 알코올 장애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0; 19(2): 63-68.
13. De Lint JE : Alcoholism, birth rank and parental deprivation. Am J

- Psychiatry 1964; 120: 1062-1065.
14. 박병선 :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15. 김소형 :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의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삶의 질,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16. 김수인, 연구월, 하은희, 우행원, 김영철 :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울증상, 신경정신의학, 2001; 40(3): 416-424.
 17. 임성욱 :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5.
 18. 김성재 :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구축: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 알코올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19. 안훈모 : 근로자의 양생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6.
 20. Agosti V : The efficacy of controlled trials of alcohol misuse treatments maintaining abstinence :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994; 29(6): 759-769.
 21. Annis HM, Davis CS : Relapse Prevention.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991; 15(3): 204-212.
 22. 성상경, 방양원, 함웅 : 주정중독 환자들의 퇴원 후 경과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3; 32(5): 698-706.